Intro to Deep learning (Deep neural networks)

Sang Yup Le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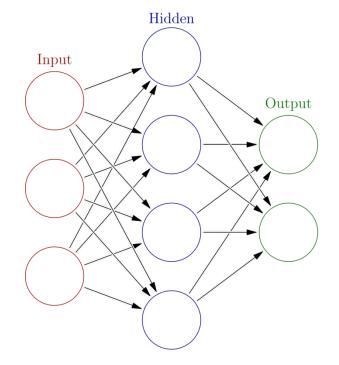


- A sort of machine learning
-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
- 전통적인 ML 알고리즘들과의 비교
 -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음
 -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 등에 따라 다름
 - 보통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성능 우수
- Then, what is a neural network? and how does it work?
 - 지도학습으로 사용되는 신경망 설명



- 3 basic layers
 - Input layer, Hidden layer, and Output layer

각 layer는 여러개의 노드로 구성



of hidden layers >=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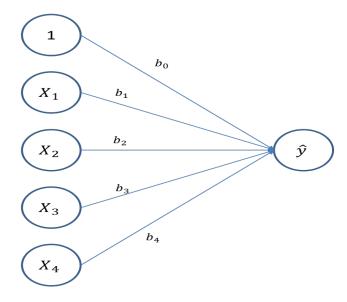


- 각 층(혹은 각 층의 노드들)의 주요 역할
 - 입력층: (각 관측치에 대해서) 독립변수의 값 (features 정보)을 입력 받고 다음 층으로 전달한다.
 - 은닉층: 입력받은 데이터에서 종속변수의 값을 맞히는데 중요한 특성을 추출한다.
 - 출력층: 종속변수의 예측치를 출력한다.
- 그렇다면 왜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보다 성능이 좋은가?



-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신경망 표현
 - 선형회귀 모형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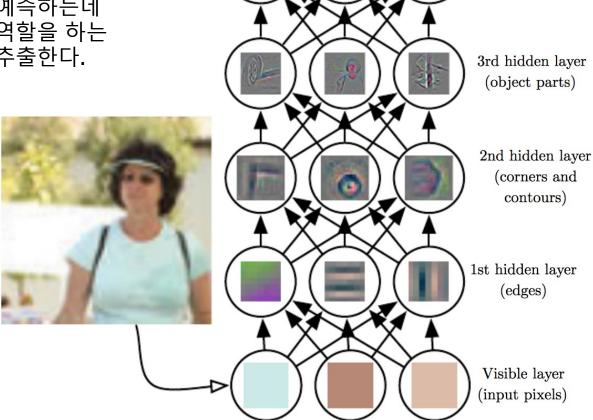
ু
$$\hat{y} = b_0 + b_1 X_1 + b_2 X_2 + b_3 X_3 + b_4 X_4$$



이는 은닉층이 신경망 (또는 딥러닝)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함. (혹은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딥러닝의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).



은닉층: 순차적으로 정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추출한다.



CAR

PERSON

ANIMAL

Output

(object identit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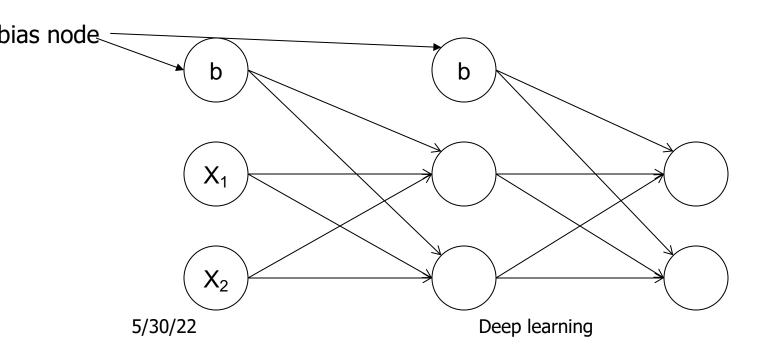


- 신경망의 구조
 - 입력층과 출력층은 언제나 1개
 - 은닉층의 수는 사용자가 결정
 - 은닉층의 수가 1 인 경우, 얕은 신경망 (shallow NN)
 - 은닉층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(Deep NN) => 보통 이를 딥러닝 알고리즘 이라고 함

- 신경망의 구조 (cont'd)
 - 각 층은 노드들로 구성
 - 노드의 역할: 어떠한 값을 입력받고, 출력하는 역할
 - 입력노드: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
 - 은닉노드: 입력된 값을 특정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해서 출력, 이러한 함수를 활성화함수(Activation function)이라고 함
 - 출력노드: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
 - 회귀문제: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
 - 분류문제: 종속변수가 각 값을 취할 확률을 출력
 - 각 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
 - 입력층의 노드의 수 = 독립변수의 수
 - 은닉층의 노드의 수 ⇒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
 - 출력층의 노드의 수 ⇒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
 - 회귀문제 ⇒ 출력 노드의 수 = 1
 - 분류문제 ⇒ 출력 노드의 수 =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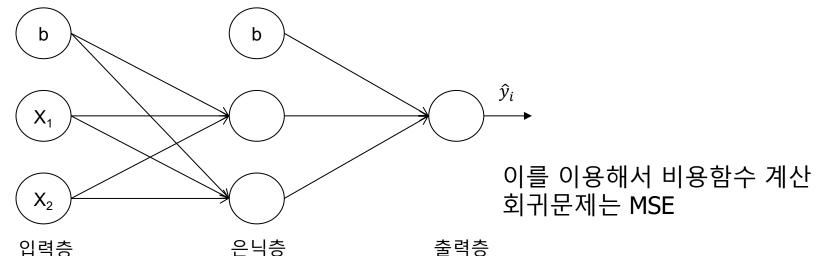
- bias node
 - 입력층과 은닉층에 존재
 - 선형 회귀 모형의 intercept 와 비슷한 역할
 - bias node에서 출력되는 값 ⇒ 1의 값을 출력한다고 생각



- 출력노드의 수: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름
- 회귀문제

5/30/22

- 예) 종속변수: 아파트 가격, 독립변수: 평수와 연식
- 출력 노드 1개
- 출력노드가 출력하는 값 = 종속변수의 예측치, 즉, \hat{y}_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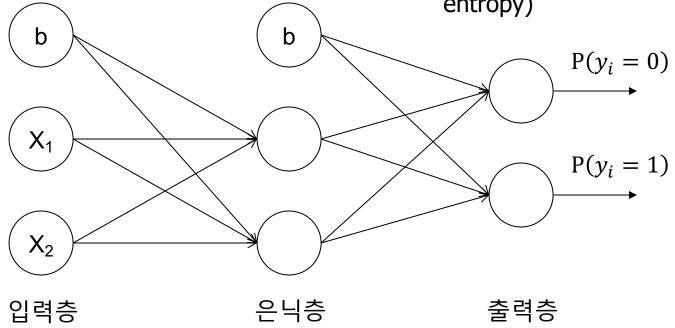


- 분류문제
 - 출력 노드의 수 =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
 - 예) 폐암에 걸렸는지 여부, then $y_i \in \{0,1\}$
 - 즉, 출력 노드의 수 = 2
 - 독리변수: 흡연 여부, 성별
 - 각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은?
 - 종속변수가 각 값을 취할 확률
 - 첫번째 출력 노드의 출력값 = $P(y_i = 0)$
 - 두번째 출력 노드의 출력값 = $P(y_i = 1)$



분류문제 (cont'd)

이를 이용해서 비용함수 계산 분류문제는 교차엔트로피 (cross entropy)





- 분류 문제의 비용함수: 교차 엔트로피
 - $E = -\left[\sum_{i=1}^{N} y_i \ln p(y_i = 1) + (1 y_i) \ln p(y_i = 0)\right]$
 - $y_i \rightarrow$ 각 관측치의 실제 종속변수 값
 - $y_i \in \{0,1\}$
 - $p(y_i = 1), p(y_i = 0) \rightarrow 모형을 통해서 예측되는 값$



- 신경망 작동 순서
 - ①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한다.
 - ②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분리한다.
 경우에 따라서는 validation set을 사용할 수도 있다.
 - ③ 신경망 (즉, 딥러닝 모형)을 이용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 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한다.
 - ④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의 (최적) 값을 찾는다.
 - ⑤ 학습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파라미터 값을 갖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한다.
 - ⑥ 평가의 결과가 괜찮은 경우, 해당 모형을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한다.



- 전통적인 기계학습과 신경망 기반 딥러닝의 주된 차이
 - 수학적 모형
- 그렇다면 비용함수는?
 - 비용함수의 종류는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.
 - 비용함수의 종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.
 - 회귀문제: MSE
 - 분류문제: 교차엔트로피

- 신경망 모형의 작동 원리 (종속변수값 예측)
 - 예: 회귀문제
 - 종속변수 (y, 연속변수)
 - 예: 아파트 가격 예측
 - 2개의 독립변수: 평수 (X1), 연식 (X2)
 - 학습하기
 -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모형의 파라미터값을 찾는다!
 - 비용함수 $\rightarrow \frac{1}{N}\sum_i (y_i \hat{y}_i)^2$
 - 각 관측치의 예측치 (\hat{y}_i) 는 (신경망) 모형을 통해 도출
 - 그렇다면 \hat{y}_i 는 어떻게 계산?
 - 사용하고자 하는 신경망 모형
 - 예) 은닉층의 수 = 1, 은닉 노드의 수 =2 인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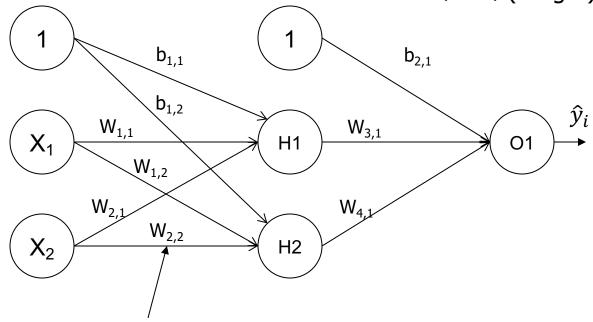


- 신경망 모형의 학습 (cont'd)
 - 사용하고자 하는 신경망 모형 구조 결정하기
 - 입력노드의 수 = ?
 - 출력노드의 수 = ?
 - 은닉층의 수와 은닉노드의 수는 사용자가 결정
 - 은닉층의 수 = 1, 은닉 노드의 수 = 2 인 모형
 - 모형의 형태: 다음 페이지 참고



Example (cont'd)

신경망에서는 파라미터는 가중치 (weight)와 편향으로 구성



이러한 화살표를 weight connection이라고 함

Example

■ 문제: 아파트의 가격 예측 하기

■ 사용 독립변수: 아파트의 크기 (평형)와 연식

■ Toy training data (10개의 data point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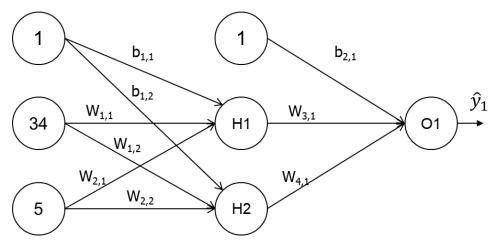
■ 다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?

ID	평수 (X1)	연식 (X2)	가격 (y)	ŷ
1	34	5	5	
2	25	5	2.5	
3	30	2	4	
4	38	20	3	
5	44	12	3.3	
6	48	18	4.2	
7	52	22	4.6	
8	60	19	6	
9	34	18	3	
10	34	22	2.9	

신경망을 통해서 계산



- What to do?
 - 각 관측치에 대해 종속변수의 예측치를 계산해야 함.
 -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되는가?
- 첫번째 관측치의 경우: X1 = 34, X2 = 5
 - 첫번째 입력노드가 X1의 값을 입력받고, 두번째 입력노드가 X2의 값을 입력 받는다.





- 일반적인 작동 방식
 - 편향노드를 제외한 각 노드는 이전 층으로 전달받은 값들을 입력받고 그 값을 출력하여 다음 층의 노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
 - 입력노드는 입력된 (독립변수 or 피처)값을 그대로 출력한다.
 - 은닉노드는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하지 않고 그 값을 변환하여 출력한다. 이때 특정 함수가 사용된다. 이러한 함수를 <u>활성화 함수</u>라고 한다.
 - 출력노드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기도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.
 - 회귀문제: 활성화함수 없음
 - 분류의문제: 많은 경우 소프트맥스 함수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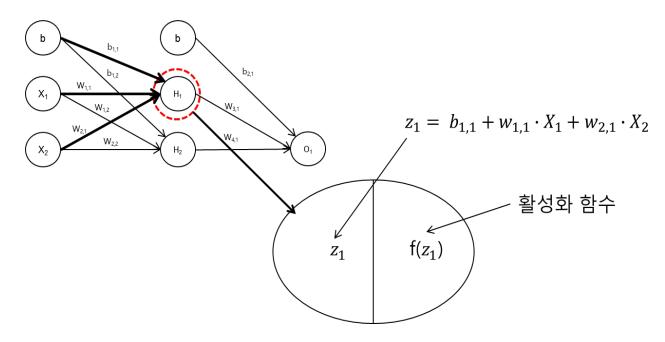
- 각 은닉노드 (즉, H1과 H2)에 입력되는 값은 무엇인가?
 - <u>입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과 각 가중치의 곱, 그리고 이들의</u> 합 + 편향
 - H1에 입력되는 값 (편의상 *z*₁으로 표현)
 - $z_1 = b_{1,1} + w_{1,1} \cdot 34 + w_{2,1} \cdot 5$
 - H2에 입력되는 값은?
 - $z_2 = ?$
- 은닉 노드의 출력값
 - 은닉 노드(그리고 출력 노드)는 대부분의 경우 입력 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하지 않는다!
 - 입력된 값을 특정한 형태로 변환 시킴 =>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 (activation function)이라고 함

- 활성화 함수 (activation function)
 - 보통 은닉노드와 출력 노드에 존재하며, 해당 노드에 입력된 값을 변환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함
 - 출력되는 값은 해당 노드가 정답을 맞히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반영
 - 여기서는 f(z) 라고 표현
 - z는 해당 노드에 입력되는 값
 - 즉, z를 입력받아서 f(z)를 출력
 - 보통 f는 비선형 함수 => **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존재할 수 있는** 비선형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
 - 선형함수를 여러개 사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 (즉, 하나의 선형함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)
 - 앞 예제에서 H1과 H2 노드의 경우
 - H1: z₁을 입력받고 f(z₁)을 출력
 - H2: z₂를 입력받고 f(z₂)을 출력
 - 다음 페이지의 그림 처럼 표현될 수 있음

신

신경망 작동 원리

■ 활성화 함수 (cont'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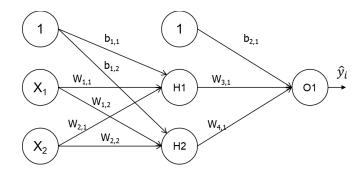
- 출력노드 (O1)에 입력되는 값
 - $z_3 = b_{2,1} + w_{3,1} \cdot f(z_1) + b_{2,1} + w_{4,1} \cdot f(z_2)$
- 출력노드의 활성화 함수
 - 출력 노드는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음
 - 회귀문제: 없음 (또는 항등함수 즉, $z_3 = f(z_3)$)
 - 분류문제
 - 보통 소프트맥스 함수 사용
 - 소프트맥스는 확률값을 리턴
- 아파트 가격 예측의 문제 (회귀문제)
 - $\hat{y}_i = b_{2,1} + w_{3,1} \cdot f(z_1) + w_{4,1} \cdot f(z_2) = z_3$



- 비용함수
 - 회귀문제: MSE 등
 - $\frac{1}{N}\sum_{i}(y_{i}-\hat{y}_{i})^{2}$
 - 아파트 가격 문제의 경우
 - y_i: i 번째 관측치의 실제 y값
 - \hat{y}_i : i 번째 관측치에 대한 (모형을 통한) 예측치
 - $\hat{y}_i = b_{2,1} + w_{3,1} \cdot f(z_{i,1}) + b_{2,1} + w_{4,1} \cdot f(z_{i,2})$
 - 비용함수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
 - 학습을 위해 경사하강법 사용



- Recap: 신경망에서의 학습
 -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의 학습의 의미와 동일
 - 즉,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것
 - 아파트 가격 문제의 경우
 - $\frac{1}{N}\sum_{i}(y_{i}-\hat{y}_{i})^{2}$ 를 최소화하는 모형의 파라미터 (b, w 등)의 값을 찾는 것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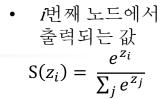
- 분류 문제의 경우
 - 예: 폐암 여부
 - 폐암에 걸렸으면 y = 1, 그렇지 않으면 y = 0
 - 학습 데이터 (예)

ID	나이 (X1)	흡연여부 (X2)	도시거주여부 (X3)	폐암 여부 (y)
1	34	1	0	1
2	60	0	1	1
3	55	0	0	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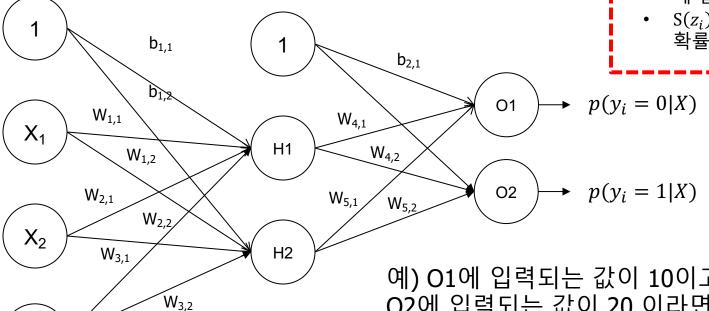


- 분류 문제의 경우 (cont'd)
 - 비용함수: 교차 엔트로피
 - $E = -\left[\sum_{i=1}^{N} y_i \ln p(y_i = 1) + (1 y_i) \ln p(y_i = 0)\right]$
 - $y_i \rightarrow$ 각 관측치의 실제 종속변수 값
 - $y_i \in \{0,1\}$
 - $p(y_i = 1), p(y_i = 0) \to$ 모형을 통해서 예측되는 값

■ 분류문제의 예 (cont'd)



- z_i는
 i번째출력노드
 에 입력되는 값
- S(z_i)은
 확률값을 의미



예) O1에 입력되는 값이 10이고, O2에 입력되는 값이 20 이라면, 각 출력노드의 출력값은 얼마인가?

 X_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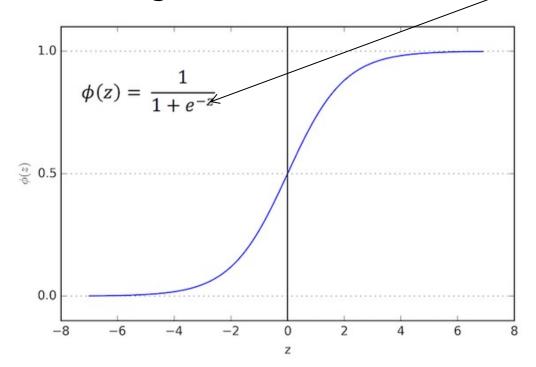


Activation functions

- Activation function (활성화함수)
 - f(z)
 - z 값을 받아서 특정 구간의 값으로 변환, 이렇게 변환된 값이 다음 layer node의 input 값으로 사용됨.
 - 역할
 - 특정한 노드가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정도 반영
 - 보통 기여를 많이 하면 더 큰 값을 출력
 - 비선형 함수 사용: IVs와 DV간 비선형 관계 파악
 - 미분이 쉬어야 함
 - 주요 활성화 함수
 - Logistic 함수 (also known as Sigmoid function)
 - Hyperbolic Tangent (tanh) 함수
 - Rectified Linear Unit (Relu) 함수
 - Leaky Relu 함수



- Activation function (활성화함수)
 - Sigmoid function: $0 \sim 1$ $z = b_{1,1} + w_{1,1} \cdot X_1 + w_{2,1} \cdot X_2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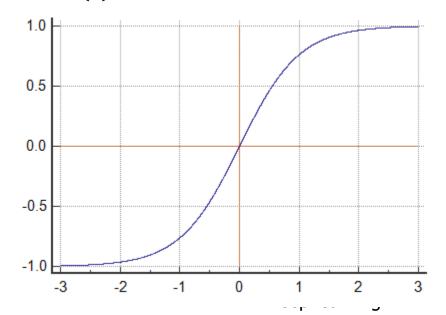
- What is the derivative of the sigmoid function?
- What is the value of the derivative at z=0?



- Activation function (활성화함수)
 - Hyperbolic tangent (tanh): -1 ~ 1

$$\tanh(z) = \frac{\sinh(z)}{\cosh(z)} = \frac{e^z - e^{-z}}{e^z + e^{-z}}$$

$$z = b_{1,1} + w_{1,1} \cdot X_1 + w_{2,1} \cdot X_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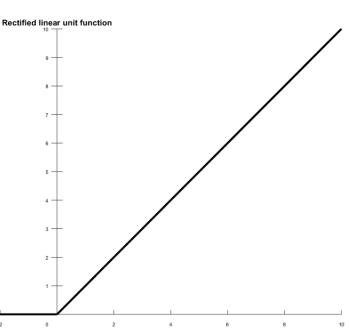


5/30/22

- Activation function (활성화함수)
 - Rectified linear unit (Relu): 0 ~

$$f(z) = \max(0, z)$$
 $z = b_{1,1} + w_{1,1} \cdot X_1 + w_{2,1} \cdot X_2$

when z > 0, max(0, z) = zwhen z <= 0, max(0, z) = 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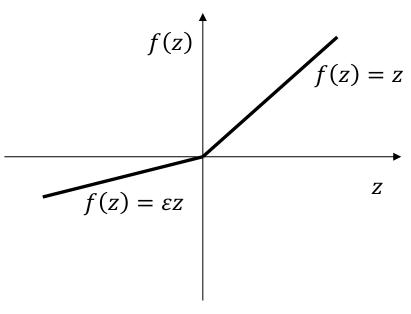




- Activation function (활성화함수)
 - Leaky Relu

$$\epsilon = 0.01 \ in \ general$$

$$f(z) = \max(\varepsilon z, z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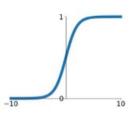


Deep learn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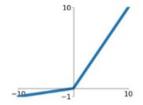
Activation functions

Sigmoi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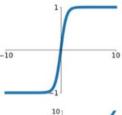
$$\sigma(x) = \frac{1}{1 + e^{-x}}$$



Leaky ReLU $\max(0.1x,x)$



tan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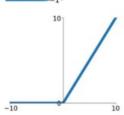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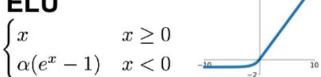
Maxout

$$\max(w_1^T x + b_1, w_2^T x + b_2)$$

ReLU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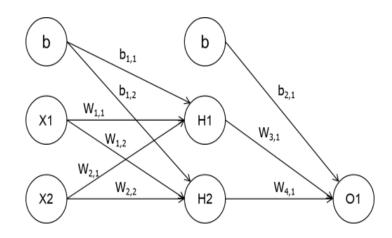
$$\max(0,x)$$







- 아파트 가격 예측 문제 Revisit
 - 신경망 구조



- 은닉 노드의 활성화 함수
 - sigmoid function: $f(z) = \frac{1}{1+e^{-z}}$

- 아파트 가격 예측 문제 Revisit
 - Then what happens?
 - 각 은닉 노드에 입력되는 값은 동일 즉, for the first data point (i.e., X1=34, X2=5)
 - H1에 입력되는 값

$$z_1 = b_{1,1} + w_{1,1} \cdot 34 + w_{2,1} \cdot 5$$

■ H2에 입력되는 값

$$z_2 = b_{1,2} + w_{1,2} \cdot 34 + w_{2,2} \cdot 5$$

- 각 은닉 노드에서 출력되는 값은?
 - H1에서 출력되는 값

$$f(z_1) \left(= \frac{1}{1 + e^{-z_1}} \right)$$

- H2에서 출력되는 값
 - $f(z_2) \left(= \frac{1}{1 + e^{-z_2}} \right)$



- 아파트 가격 예측 문제 Revisit
 - 각 관측치의 종속변수 예측치
 - 오차 계산
 - MSE 비용함수 계산
- Optimization problem
 - 비용함수를 minimize 하는 파라미터의 값 찾기
 - 경사하강법



신경망에서의 경사하강법

- 학습
 - 즉,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가중치의 값 찾기
 - Optimization problem
 - 주요 방법
 - Normal equation: appropriate when the cost function is convex
 - But, usually the cost function of DL is not convex (a lot more complex)
 - or too many parameters
 - Gradient descent
 - 경사하강법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가중치들의 값을 여러번 업데이트 하면서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가중치 값을 찾는 방법 (w_{1.1}의 경우)
 - $w_{1,1,new} = w_{1,1,current} \eta \frac{\partial E}{\partial w_{1,1}}$

Review

■ 신경망

- 딥러닝은 신경망 모형을 기반으로 함
- 신경망의 구조
 - 입력층, 은닉층, 출력층
 - 은닉층의 존재 →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의 가장 큰 차이
 - 각 층 혹은 각 층의 노드의 역할
- 은닉 노드
 - 활성화 함수 존재
 - 같은 층에 있는 노드들은 같은 활성화함수 사용
 - 활성화함수 보통 비선형 함수를 사용
 - 각 은닉노드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를 반영



- 신경망의 작동원리 (지도학습의 경우)
 - 여느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
 - 참고: 신경망에서는 파라미터는 가중치와 편향으로 구분
- 비용함수
 - 문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
 - 실제의 종속변수 값과 모형을 통한 예측치로 구성
 - 회귀문제의 경우
 - 종속변수 값의 예측치 출력
 - 분류문제의 경우
 - 각 노드에서 출력되는 값 → 종속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을 확률
 - 이는 출력노드에 입력된 값이 확률 값으로 변환되어 출력된다는 것을 의미
 - 그렇다면 확률값은 어떻게 계산되는가?

- 경사하강법의 종류
 - 경사하강법은 한번 업데이트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포인트의 양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
 - Batch Gradient Descent
 - 업데이트를 한번 할 때 마다 (비용함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) 전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
 - 많은 메모리 공간 필요,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
 - Stochastic Gradient Descent
 - 업데이트를 한번 할때, 랜덤하게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을 사용
 - 업데이트 되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음, 수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
 - Mini-batch Gradient Descent
 - 한번 업데이트할 때 하나의 전체 데이터의 일부 (이를 mini-batch 라고 함)를 사용하고,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mini-batch를 이용해서 비용함수 (혹은 기울기)의 값을 구하는 방법
 - https://hyunw.kim/blog/2017/11/01/Optimization.html 참고

- 경사하강법
 - 비용함수: MSE
 - 비용함수의 형태
 - For the total data points (in the training dataset, batch data, # of data points = N)

•
$$E = \frac{1}{N} \sum_{i=1}^{N} E_i = \frac{1}{N} \sum_{i=1}^{N} (y_i - \hat{y}_i)^2$$

- For a single data point
 - $\bullet \quad E_i = (y_i \hat{y}_i)^2$
- For a mini batch (i.e., # of data points = h, where 1<h<N)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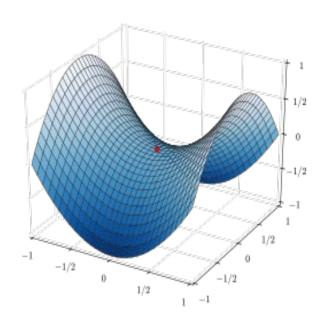
•
$$E = \frac{1}{h} \sum_{i=k+1}^{k+h} E_i = \frac{1}{h} \sum_{i=k+1}^{k+h} (y_i - \hat{y}_i)^2$$



OPTIMIZER의 종류



- 기본적 방법의 문제
 - 1) 비용함수의 saddle point를 잘 벗어나지 못한다.
 - 딥러닝에서는 파라미터가 많아서 local optima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. 대신 오른쪽 그림과 같은 saddle point가 많이 존재한다. 즉, saddle point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.
 - 2) 속도가 느리다.





- 기본 경사 하강법의 제한점
 - 기본 업데이트 공식 => $w_{j,i,new}=w_{j,i,current}-\eta \frac{\partial E}{\partial w_{i,i}}$
 - 제한점
 -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.
 - 업데이트 횟수와 상관없이 learning rate가 고정되어 있다.



- Optimizer의 종류와 특성
 -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optimizer 제안
 - 기본 업데이트 공식을 약간씩 수정/보완한 방법들임
 - 대표적 Optimizers
 - Momentum
 - Adagrad (Adaptive Gradient)
 - RMSprop (Root Mean Square Propagation)
 - Adam
 - 다른 optimizer들은 https://ruder.io/optimizing-gradient-descent/를 참고

Momentu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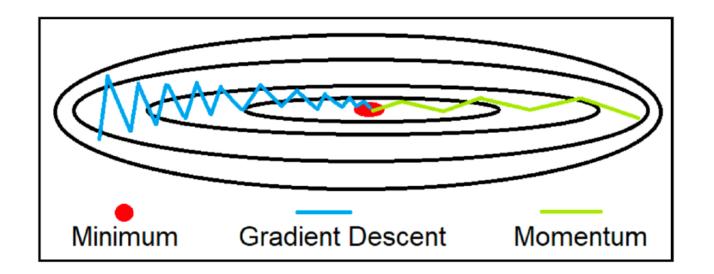
■ 이전 update 정보를 기억, 현재 update에 반영하는 방법

$$v_t = \gamma v_{t-1} + \eta \frac{\partial E}{\partial w_{t,i}}$$
 이번에 계산된 gradient $w_{t+1,i} = w_{t,i} - v_t$ 이전 update 내용 $0 < \gamma < 1$ $v_{t-1} = \gamma v_{t-2} + \eta \frac{\partial E}{\partial w_{t-1,i}}$ (GD 에 비해서) 가장 최근 정보를 더 많이 반영

- 장점 (GD 에 비해서)
 - local minimum/saddle point 를 잘 피한다.
 -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다.



- Momentum (cont'd)
 - 효과



이러한 방법을 learning rate decay라고 부름

 ϵ is a smoothing term that avoids division

- Adagrad (Adaptive Gradient)
 - GD => 업데이트 횟수와 상관없이 learning rate를 동일하게
 - 하지만, Adagrad는 다르게
 - 지금까지 업데이트 된 정도를 반영한다.
 -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많이된 parameter는 learning rate를 작게

$$w_{t+1,i} = w_{t,i} - \frac{\eta}{\sqrt{G_t + \epsilon}} \cdot g_{t,i}$$
합
$$g_{t,i} = \frac{\partial \mathbf{E}}{\partial w_t}$$

지금까지 gradient의 합

$$\sum_{k=1}^{t} g_{k,i}^2$$

주요 문제

- Gt가 갈수록 커진다 => 업데이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.
- Adadelta, RMSprop

5/30/22

Deep learning

- RMSprop (Root Mean Square Propagation)
 - Adagrad의 확장 버전
 - 무조건적으로 줄어드는 learning rate 문제를 보완
 - 합이 아니라 평균을 사용 [과거 gradients 들의 평균]

$$w_{i,t+1} = w_{i,t} - \frac{\eta}{\sqrt{E[g^2]_t + \epsilon}} \frac{\partial E}{\partial w_i}$$

$$E[g^2]_t = \rho E[g^2]_{t-1} + (1 - \rho)g_t^2$$

이를 moving average라고 함 ho는 보통 0.9 정도

- Adam
 - RMSprop + momentum
 -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
 - Momentum 방식

$$v_t = \gamma v_{t-1} + \eta \frac{\partial \mathbf{E}}{\partial w_i}$$

■ RMSprop 방식

$$w_{t+1,i} = w_{t,i} - \frac{\eta}{\sqrt{E[g^2]_t + \epsilon}} \frac{\partial E}{\partial w_{t,i}}$$

■ 둘을 결합하면,

$$w_{t+1,i} = w_{t,i} - \frac{v_t}{\sqrt{E[g^2]_t + \epsilon}}$$

- 자세한 내용은
 - Kingma, D. P., & Ba, J. (2014). Adam: 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. arXiv preprint arXiv:1412.6980.
 - https://ruder.io/optimizing-gradient-descent/index.html#adam



- Optimizer들의 비교
 - http://ruder.io/optimizing-gradientdescent/index.html#visualizationofalgorithms
- Which optimizer to use?
 - https://ruder.io/optimizing-gradientdescent/index.html#whichoptimizertouse



Q & A